

北方政策과 統一政策 —韓國의 中·蘇間의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李 命 守
政治外交學科

<要 約>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길은 葛藤 및 對立을 止揚하고 相互交流와 信賴 및 協力の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다.

最近의 國際社會는 對決에서 和解로 分斷에서 統一로 가고있으며 이데올로기의 兩極이 점차 무너지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만은 40여년 동안 冷戰의 狀態만 계속되어 온 채 統一을 열망하는 南·北韓民族 및 離散家族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硬直된 霧圍氣속에서 東歐事態의 變化 및 고르바초프(Mikhail S.Gorbachev)의 大改革政策은 革命的인 것으로 이것이 北韓의 金日成(Kim IL-sung)體制 및 南·北關係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다.

특히 韓半島周邊 強大國인 中國, 蘇聯를 中心으로한 우리의 北方政策이 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본다.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ward and Unifi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Lee, Myung-Soo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bstract>

There is an agreement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unified in peace through establishing a basis for mutual support and cooperation as well as for mutual commutation by resolving conflicts and antagonis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t recent years, international relationships have been changing from contention to reconciliation, and from division to unity. Moreover, polarized ideological confrontations between two worlds - liberal capitalists and social communists - are gradually diluted and dissolved. By contrast,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s have been in cold war for the last 40 and more years.

All the Korean who wishes to achieve unification and those families separat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eager to be one. In this rigid situation, the revolutionary changes in Eastern Europe and reformative policies of President Mikhail S. Gorbachev in Soviet Unions have brought about tremendous impacts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of both capitalist and communist worlds.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changes in Eastern Europe and Soviet Unions on Kim Il-sung regime in North Korea and on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viet which are two powerful n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 intend to show how the Northward policies of South Korea influence and condition unification policies and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ose policies o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I. 序 論

韓半島 주변정세는 美·蘇間의 新데탕트 氣流에 따라 1990年代에 進入하면 상당한 變化가 예견된다. 우선 주변 強大國들은 韓半島問題로 因하여 戰爭을 願치 않을 것이며, 그로인해 緊張緩和의 努力이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豫상된다. 이러한 美·蘇·中의 緊張緩和趨勢는 1990年代內에 구체적결과가 나타나 최소한 強大國間에는 武力戰爭이나 충돌보다는 心理戰이나 經濟的競爭 등으로 自國의 實利追求를 원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傾向이 크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美·蘇·中·日 등의 利益이 尖銳化되어 있는 韓半島에서의 緊張高潮나 戰爭再發은 그들의 國益에 背馳되므로 이를 願치 않을 것이며, 四強들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도모하는데 關心을 集中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 強大國들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하여 南北韓關係의 改善 및 統一問題를 당사자간의 直接的인 對話와 交流를 通해서 解決하도록 보다 많은 壓力을 가할 可能性이 높다.¹⁾

蘇聯과 中國도 그들의 生存論理와 國家發展을 改革(Perestroika)과 開放(Glasnost)政策을 追求하고 있으며 그들 國益을 爲해 韓國과의 關係를 積極化할 公算이 크다. 특히 88서울올림픽 參加 以後 中·蘇의 對韓認識變化로 이들 國家와의 關係는 急速度로 進展되고 있는 狀況이다.

한편 美·日 등 西方國家들도 北韓과의 接觸可能性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豫상되며, 이러한 狀況을 고려할 때 四強과 南北韓關係는 1990年代內에 交叉接觸에서 交叉承認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要因등으로 最近의 國際社會의 變化中에서 가장 두드러진 現象은 社會主義國家들이 改放과 改革을 追求하면서 強大國들이 過去의 相互 對決的인 政策에서 妥協과 和解의 政策으로 政策的 變化를 追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美·蘇間의 協助關係 樹立뿐만 아니라 中·

* 본 論文은 1989년도 본대학 연구비 조성에 의한 것이다.

1) 金得柱, 「現代政治理念과 南·北韓關係」(서울: 大旺社, 1989), pp.311~315 參照.

蘇和解 中國과 臺灣, 中國과 베트남의 關係改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蘇聯은 아시아국가들과의 關係, 특히 經濟分野에서의 關係를 확대하고자 積極的으로 努力하고 있다.

따라서 東歐事態의 變化 및 고르바초프의 一大改革政策은 革命的인 것으로 이것이 北韓의 金日成體制 및 南北關係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韓半島周邊 強大國인 中·蘇를 中心으로 한 그들의 開放政策과 우리의 北方政策이 統一政策과 관련되어짐을 고찰하여 본다. 다만 世界情勢가 하루가 다르게 急變하는 狀況속에서 東歐의 變化, 그 중에서도 社會主義宗主國인 蘇聯의 變化는 예측하기 힘든 國內外問題를 안고있고 이러한 東歐의 開放化에 따른 中國의 政治變化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變化의 速度에 本論文이 步調를 맞출지가 의문이며 주어진 資料에 限定되어 있음을 理解해 주기 바란다.

II. 北方政策의 概念 및 背景

1. 北方政策의 概念

北方外交나 北方政策이란 用語는 1973년 朴正熙大統領이 '6·29'宣言을 發表하면서 韓國의 對共產圈門戶開放政策에서 널리 使用되기 始作하였고 1983년 6월29일 國防大學院講演會場에서 故이범석 外務部長官에 의해서 公式적으로 言及되었다.

그동안 이 概念에 대한 論議가 多樣하게 있어왔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韓國外交의 對象에서 제외되었던 蘇聯, 中國, 東유럽共產國家 및 北韓을 「自主外交」 또는 「統一外交」의 對象으로 轉換시키고,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과 統一 나아가서 經濟的 實利追求를 위한 우리政府의 自主的 이니셔티브를 強化함으로써 새로운 韓國安保體制的 確立을 基本內容으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意味에서 統一의 可能性 摸索이란 궁극적인 目的에 도달하기 위해 北方政策의 概念 定立이 먼저 必要한 것이다. 이 政策은 단순히 地理的 擴大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다 廣義의 地政學的 擴大를 통한 政治, 外交의 意味로 볼 것인가 하는 問題와 연결된다.

단순히 地政學的 概念일 경우 中, 蘇를 中心으로 한 北韓과의 關係改善에 그칠것이지만 廣義의 地政學的 意味를 附與할때 非敵對인 모든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試圖하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³⁾

西獨의 브란트 前首相이 蘇聯과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그다음 동독과 폴란드와 關係를 正常化하여 유럽에서 平和體制를 樹立하였고, 그 基礎위에서 東西獨間의 平和共存의 틀을 만들었다. 그의 이러한 東方政策(Ostpolitik)의 넓은意味를 地政學的 見地에서 追求했기 때문에

2) 學界에서는 6·23선언으로 韓國이 북쪽의 소련과 중국과의 關係改善을 시도한다고 보아 西獨의 東方政策(Ostpolitik)과 비교, 北方政策(Nordpolitik)이라고 표현했다.

Robert A. Scalapins, "Regionalism in the Pacific: Prospects and Problems for the Pacific Basin", The Atlantic Community Quarterly, Summer 1988, 朴弘圭, "韓國의 北方外交와 對美·日關係", 「외교」, 제 12호(한국외교협회, 1989. 12), pp.80~81 參照.

3) 許漫, "北方政策과 平和統一", 「외교」, 제12호(한국외교협회, 1989. 12), p. 88~89.

平和共存의 틀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美, 蘇의 유럽優先政策속에서 東方政策이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北方政策은 美, 蘇, 中, 日이란 四強의 理解關係를 調整해야 하고,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하는 同時에 東歐의 社會主義國家들의 支持와 協助 및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의 社會主義國家들과의 支持와 協助를 얻어서 마지막으로 北韓의 닫혀진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운 障礙物이 東方政策의 경우에 比較하여 곤란한 점이 더 많이 놓여있다. 이러한 環境에서 現在 우리의 北方政策은 廣義의 地政學的 概念에서 모든 友好的인 社會主義國家들의 支持와 協助가 不可決한 것이다. 즉, 이들과의 接近, 對話 및 交流만이 北韓의 닫혀진 사회를 開放化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北韓의 對南革命戰略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韓半島에서 平和共存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視覺에서 볼 때 韓國의 北方政策은 美, 日을 비롯한 南方外交의 核心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北方政策을 推進해야 하는 두가지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다. 즉 급격한 對中·蘇關係改善이 美, 日 또는 西歐의 友邦들에게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하고, 한편 對美·日偏向外交가 北方政策을 推進하는데에 制限的 要素가 되는것을 적절히 調節해야만 되는 것이다. 韓國의 政策樹立家들은 韓, 美, 日의 傳統的인 南方三角協力 關係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中, 蘇, 北韓의 北方三角協力 關係에 적응해 들어가는 技術을 開發하는 것이 實질히 要請된다.⁴⁾ 韓國은 外交戰略上 北方政策을 美國의 世界的 次元의 封鎖戰略에 맞추어가면서 社會主義國家圈에 연결시키야 하는 難點을 지니고 있다. 만일 이 어려움을 効果的으로 解消할 수 있는 戰略이나 技術을 開發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可能性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北方政策의 定義는 “中國, 蘇聯, 東歐諸國과 기타 共產國家 및 北韓을 對象으로 하는 外交政策과 外交를 意味하는 것으로써 中, 蘇와의 關係改善을 도모함으로써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고 共產國家와의 經濟協力을 통한 經濟利益의 增進과, 南北韓 交流, 協力關係의 發展追求, 그리고 궁극적으로 共產國家와의 外交正常화와 南北韓統一의 實現을 위한 政策과 이러한 政策實現을 위한 方法”으로 定義할 수 있다.

2. 北方政策의 背景

韓半島는 強大國들의 利益이 交叉되는 만큼 國際社會變化에도 매우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철저한 冷戰狀態를 보여온 強大國家들 사이에 解氷과 和解의 움직임은 韓國의 對北韓政策에도 상당한 變化를 超來케 하였다. 韓國은 「7·7宣言」⁵⁾을 통하여 北韓에 상당한

4) 東北亞 國際體制內的 체제역학관계를 韓國의 視覺에서 分析 혹은 설명하는 방법으로 韓·美·日 관계를 「南方三角關係」 또는 韓國의 對美·日政策을 「南方政策」으로 설명하기도 하여 北韓·中國·蘇聯 關係를 「北方三角關係」 그리고 對中·蘇政策을 「北方政策」으로 설명해온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外交政策의 主要概念으로 등장한 北方政策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20년간 韓國外交政策의 主要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

金達中, “北方政策의 概念”, 「國際政治論叢」, 제29집2호(韓國國際政治學會, 1989), pp.42~43 參照.

5) 1988.7.7. 盧泰愚 大統領이 발표 「한반도에 平和를 정착시킬 條件을 조성하기 위하여 北韓이 美, 日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協조할 容의가 있으며, 소련, 중국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主要내용이다.

柔和措置를 취하였는가 하면 1988년 10월 18일 UN 총회에서 「六個國平和會議」⁶⁾을 提案하기도 하였다.北韓 또한 그동안 中蘇의 關係正常化로北韓의 選擇範圍도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

이제 韓半島는 冷戰時代로부터 남겨진 遺産을 清算하기 위하여 새로운 試圖를 꾸준히 努力하여야 할 段階에 온 것이다. 國際情勢의 難氣流는 그러한 氣流에 맞게끔 發想의 轉換을 韓半島에 要求하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固定觀念의 轉換을 통한 새로운 思考는 새로운 價値를 낳을 수 있다는 時代的 要請을 끊임없이 受容하지 않으면 안될 狀況으로 韓國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北方政策背景도 重要的 要因이 되는 安保的 側面과 經濟的 側面에서 살펴본다면 安保的 側面에서는 周邊四強이 介入되는 경우 이는 四強(美·蘇·中·日)의 國家利益 正面으로 違背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美·蘇緊張緩和와 協力體制는 무너질 것이며, 美, 中, 혹은 日, 中關係는 다시 惡化될 것이다. 따라서 四強은 그들 자신의 國家利益과 強大國間의 緊張緩和와 協力關係를 維持하기 위하여 韓半島平和와 安定維持에 共同의 利益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韓半島周邊의 強大國間 理解關係는 바로 韓國의 利益과 一致하며, 이러한 共同利益의 存在가 北方政策의 論理的 根據와 政策實効性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經濟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그동안 美, 日에 偏重되어왔던 貿易去來 및 商品市場의 偏重度가 韓國企業측에서는 國內經濟與件의 惡化(高賃金, 高物價, 技術開發, 投資 축소 등)에 따라 賃金이 낮고 資源이 풍부한 國家에서 生産의 國際化를 통해 이를 克服하고자 努力하였다. 여기에 時期를 맞추어 中國과 蘇聯市場의 開拓이 北方政策의 促進制役割을 하게된 背景이 된다.⁷⁾

이런 背景들을 綜合해 보면 北方政策은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과 對北韓政策의 基礎를 이루는 것으로 첫째, 第6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高調된 統一論議에 대한 國民의 熱望을 積極적으로 受容하고, 國內外情勢의 變化에 따른 統一政策 및 對北韓政策의 새로운 定立의 必要에 副應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國力身長에 따라 이제는 對北韓競爭 및 對決外交를 止揚하고北韓과 實質的인 民族概念을 適用, 北韓側의 立場을 受容하는 段階에 들어선 것이며 셋째, 最近 中, 蘇의 開放政策에 따른 共產圈內의 變化趨勢를 活用하여 國際적으로 孤立되어있는 北韓의 開放을 誘導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하고 統一을 爲한 與件을 造成하고 넷째, 이러한 北方政策과 對北關係의 새로운 模索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主導國家로써 位置를 占領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6) 美·蘇·中國·日本이 南韓·北韓이 참가하는 國세회의로 이것이 美·日의 北韓 承認과 中·蘇의 南韓承認까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담고 있다.

7) 金得柱, 「韓國政治理念과 南·北韓關係」(서울: 大旺社, 1989), pp.311~315 參照.

〈표 1〉

〈蘇聯—東歐의 改革 現況〉

	蘇 聯	폴 란 드	헝 가 리	東 獨	체코슬로 바 키 아	유 고 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정식명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변경가능성)	폴란드공화국(중선 폴란드 인민공화국)	헝가리공화국(중선 헝가리 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	루마니아(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원수	고르비초프최고회의의장(89년5월)	야루젤스키대통령(89년7월)	쉬로시임시대통령(89년10월)	세클라호국가평의회회장(89년12월)	하벨대통령(89년12월)	도르네비체크연방간부회의장(89년5월)	블라네노프국가평의회회장(89년11월)	일리에스쿠국가선전의장(89년12월)
총리	리츠코프	다조비에츠키	베메트	모도로프	찰파	마르코비치	루카노프	로만
집권 정당당수	蘇聯공산당 고르바초프서기장	폴란드공화국 사회민주주의(약칭 社會民主黨·중선폴란드 통일노동자당) 쿠바스니크 스키의장	헝가리사회당(헝가리사회주의 노동자당의 노동자당) 니에르시의장	독일민주사회당(독일사회주의 통일당) 기지의장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모호리타 세1서기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 관체프스키 간부회의장	불가리아 공산당 릴로프최고평의회회장	구국전선 일리에스쿠의장
정당제	다당제	다당제	다당제	다당제	다당제	4월총선전 다당제 채택 화실	다당제	다당제
자유 선거	복수후보, 비민투표에 의한 人民代議員선거(1월7일~3월25일)	89년 6월 4일 실시	3월25일	3월18일	6월8일	4월	5월말까지 실시 예정	5월20일
개혁 추진 세력	각 공화국 人民戰線 지역人民代議員	자유노조	民主포럼	新포럼	市民포럼		民主세력同盟	구국전선평의회
對韓 관계	89년 7월 무역 사무소개설 89년12월 영사처 교환설치	89년 5월 무역 사무소개설 89년11월 국교수립	88년 5월 무역 사무소개설 89년2월 국교수립	아직 접촉없음	1월 수교협상 마무리 곧 수교발표	1월 국교수립	89년 7월 무역 사무소개설 2월중으로 수교협정가서명	아직 접촉없음
향후 일정	3주내에 중앙위 전체회의 개소집 5월 黨대회개최	4월 지방의회 선거	3월16일 국회 해산 3월 총선후 대통령직접선거		5월 黨대회개최 6월총선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5월 총선후 대통령직선

(자료 : 「세계일보」, 1990. 2. 9).

III. 蘇聯開放政策과 韓半島 統一

1. 蘇聯改革의 必要性

美國은 1970年代末부터 1980年代 初에 걸쳐 強한 美國의 建設을 내세워 強大國으로서의 世界支配의 主導權을 掌握하려는 美國의 政策을 계속 追求하여 왔다. 反面 蘇聯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가 實權을 掌握하여 곧 改革을 斷行하였다. 그는 우선 人類가 核戰爭과 生態界의 파괴로부터 共滅의 危機에 놓여 있다는 것을 前提로 國際社會에 획기적인 發想의 大轉換을 試圖하였다.⁸⁾ 1979년 당시 蘇聯의 外交路線은 소위 브레즈네프독트린으로 불리는 制限主權論⁹⁾에 의해 支配되고 있었다. 브레즈네프독트린과 비교해 보면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새로운 發想은 蘇聯外交路線의 엄청난 變化로 보여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國際秩序에도 크다란 變化를 주고 있다.

특히 그간 同時多發의으로 各地域을 어지럽혔던 美國과 蘇聯, 蘇聯과 中國間의 代理戰爭을 서서히 잠재우고 있을뿐만 아니라, 經濟, 社會, 文化的 利益增進을 위하여 블럭(bloc)化하는 實利追求의 樣相을 뛰어넘고 있다. 즉 유럽의 統合, 아시아國家聯合, 東北亞協力體制構想, 캐나다와 美國이 單一經濟圈을 形成하기 爲하여 活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등이 그예이다.

결국 蘇聯이 이와같은 外交路線의 變化는 對外的인 側面에서 볼 때 個別國家의 發言權 增大와 國際社會의 多樣化 趨勢에 따른 現實認識의 變化로 보여진다.

바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 改革政策)¹⁰⁾로 불리어지고 있는 蘇聯의 이러한 改革은 既存의 國家 및 黨機關과 並行하여, 勞動組合, 立法機關, 民族團體 및 文化機關과 職業的 組織體들에게 責任과 權力의 一部를 分離하여 競爭을 刺戟함으로써 機能을 活性化하려는 努力이다.

從來의 改革이 既存制度內에서 作業意識, 作業原則의 遵守를 統制나 制裁, 產業間의 優先順序의 變更, 執行機構의 調整 및 政策決定權者의 更迭등에 의하여 行해졌던 反面에(후두시초프나 코시킨의 改革), 페레스트로이카는 經濟改革의 段階를 벗어나 社會·政治의 側面的 全般的인 變化가 必須의임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이 고르바초프時대에 와서 可謂 革命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改革에 直面하게된 必然性은 蘇聯體制 自體의 危機에 있다. 이

8) 金成允, "中蘇의 和解와 韓半島", 「統一問題研究」, 第1卷3號(國土統一院, 1989, 가을), p. 169.

9) 制限主權論이란 特定社會主義 國家가 路線이탈의 조정이 보일때는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 특히 宗主國인 소련은 武力으로라도 이에 介入할 수 있다는 當爲論的 주장을 하였다. 1968년 체코를 武力으로 두브체크를 숙청한 것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공정대를 투입하여 親蘇政權을 세운것은 모두가 소련의 制限主權論에 正當性的의 근거를 둔것이다.

10)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는 經濟뿐만 아니라 社會生活의 모든 部門에 미친다고 하였다. 즉, 社會關係, 政治體制, 精神的, 이데올로기의分野, 그리고 黨과 黨幹部의 業務遂行形成 및 立法에 미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모든 多樣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이다. 나는 이를 革命과 견주어 본다. ... 진정한 革命은 人民의 마음과 가슴에 現時代의 心理와 이에 대한 理解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속한 科學, 技術의 進歩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고르바초프의 하바로프스크 연설, 「pravda」, 1986. 2. 8.).

는 經濟的인 危機, 社會的인 危機, 精神的인 危機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 이들중에서 經濟政策의 失敗로 因한 危機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주된 目的이었다. 그러면 經濟改革을 斷行하게 된 背景은 다음과같은 理由로 因하여 不可避하였다. 이는 軍事力이 弱화될 것이라는 豫想과 外貨危機의 두 部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²⁾

첫째, 體制의 非効率성과 아울러, 1970年代 後半부터 1980年代 前半에 걸쳐 強行한 「投資를 희생해서라도 軍備」이란 非常手段的인 經濟運營의 後遺症으로, 蘇聯의 經濟成長力은 현저히 低下되었다. 그에따라 80년대 中半以後 蘇聯의 軍備擴張의 Tempo가 상당히 低下될 것으로 豫측되었다. 이는 蘇聯의 世界戰略이 重大한 危機에 봉착하게 됨을 意味한다. 왜냐하면, 蘇聯型的 政治, 經濟體制가 매우 非效率的이고 自由를 缺如하고 있다는 幻滅感이 全世界적으로 擴大되고 있던 그무렵(改革前) 國際共產主義勢力의 擴大攻勢를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蘇聯의 強大한 軍事力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蘇聯의 軍事力이 弱化되기 始作할 때, 戰勢는 一時的으로 逆轉하여 共產主義 陣營이 退潮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을 蘇聯의 首腦部는 豫측하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그런 事態를 어떤 方法을 動員해서라도 防止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둘째, 식유수출 激減에 의한 外貨不足의 危機이다. 蘇聯의 對西方輸出에 의해 獲得되었던 外貨가운데 過半數以上이 石油이었다. 그러나 輸出物量의 減少와 油價下落으로 因해 장래에 石油輸出에 의한 外貨獲得 能力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豫측되고 있다. 外貨不足은 西方側으로부터 資本輸入, 新技術導入을 어렵게하여 蘇聯經濟를 한층 停滯시키고, 아울러 軍備擴張의 速度를 大幅 低下시키게 됨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斷行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內容도 政治, 經濟, 社會의 모든 改革은 國民意識改革을 包含하는 廣範圍하고 根本的인 改革이면서 長期的인 發展戰略임을 이미 詳及한 바 있다. 改革의 궁극적인 目的은 國民生活水準 向上에 있다. 이와 같은 經濟改革에 있어서 對外貿易部分의 改革을 보면, 이는 1988년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스크 演說」¹³⁾에서 表現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政策執行 過程에서도 施行錯誤가 있듯이 蘇聯의 對外開放政策에도 肯定的인 面만 있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도 對外開放擴大에 따른 限界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蘇聯의 經濟改革을 서두르게 된 原因은 前述했듯이 經濟成長의 不振에 있다. 심각한 現任의 經濟的 困難이 어느정도 解消될 때 改革意志가 減少될 可能性이 있다. 그렇게되면 對外開放이 다시 縮小될 수도 있다.

11) 李崇熙, “페레스트로이카의 發展段階”, 「統一問題研究」, 第1卷3號(國土統一院, 1989. 가을), p.191.

12) 河能守, “蘇聯經濟의 對外開放擴大의 進展과 展望”,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釜山大中國問題研究所 共同主催學術세미나 發表論文, 1989. 10, pp.1~8 參照.

13)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스크연설」에서 ;

- ① 企業, 組織, 生産協力體에게 海外市場과 직접 접촉하는 권리를 준다.
- ② 외국에서 消費財를 輸入하는 것을 포함하여 輸入의 일부분을 自由롭게 사용할 권리를 준다.
- ③ 貿易業體들이 그들의 收益全部를 投資하여 外國에서 機械와 자재를 도입할 수 있다.
- ④ 地域, 行政委員會의 허가를 얻어 國內企業들이 外國과 직접 合作할 수 있다.
- ⑤ 合作事業에는 일정한 조건아래 세금을 면제한다.
- ⑥ 合作企業의 임금결정을 經營陣과 貿易機構의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② 蘇聯에는 從來의 이데올로기에 執着하여 變化에 反對하는 保守勢力이 存在하고 있다. 現在의 改革派를 대신하여 保守派가 得勢하면 改革의 速度가 늦어지거나 나아가서 改革自體가 中斷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蘇聯이 對外開放을 擴大해 간다는 根本原則은 確固하다. 그러나 이를 實行해갈 수 있는 各種措置와 社會·經濟的 與件이 調和를 이루면서 效果的으로 進行되기는 쉽지 않다. 市場에 카니즘을 통한 價格決定, 利潤의 獲得과 處分에 있어서의 自由, 經營의 自律性등은 對外開放 擴大를 위한 條件들인 바, 社會主義體制의 統制經濟에서 이들 機能은 制限的일 수 밖에 없다.

④ 蘇聯의 對外貿易이 계속 增加하기 위해서는 對西方輸出에 의한 外貨獲得이 크게 增加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⁴⁾ 이를 위해서는 對應貿易의 要求 등 制度的인 問題의 是正과 아울러 輸出製品의 高級화와 生産性向上 등 根本的 對策이 講究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成果는 짧은 期間內에 達成되기 어려울 것이다.

⑤ 現在 進行中인 經濟改革의 成果가 나타나서 經濟力을 다시 回復하게 되는 경우 蘇聯이 從來와 같은 霸權主義로 되돌아가게 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蘇聯對外開放의 必要性을 經濟的인 危機를 中心으로 알아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 派生되어 나온 社會的·精神的 危機등으로 나타난 問題點이 앞으로 改革의 可能性의 擴大 및 縮小를 나타내는 重要한 變數가 될 수 있다.

經濟改革의 失敗가 一般 蘇聯國民의 期待와 價値에 미치는 衝擊이란 想像할 수가 있다. 變化의 樣相이 期待와 關心속이 從前의 公的領域보다 個人領域으로 옮겨가 蘇聯國民生活의 “個別的”인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都市化 現象으로 一般國民의 高等教育의 機會上昇은 蘇聯國民의 意識變化를 同伴하여 家庭 및 社會 全般에 걸쳐 精神的 葛藤을 가져오는 逆作用을 낳고 있다.¹⁵⁾

蘇聯의 中產層은 社會的인 身分과 그의 政治, 經濟的 位置사이에 存在하는 間隙에 實望하고 있다. 그들의 社會的 基盤은 分散되어 있고 政治的으로는 無力하다. 이들은 한편에 있어서 人的關係로 깊게 짜여져 있는 政治엘리트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僞裝된 嫌惡感으로 因하여 勞動者계층으로부터 隔離되어 있다. 특히 中間階層은 經濟的으로 혜택을 받지못해 그들 收入은 숙련노동자나 면화재배자보다 적은 現象이다. 이러한 俸給水準의 凍結은 이미 70年代 初盤에 이루어져 이 階層은 점점 社會的 아노미現象으로 進入하고 있다. 특히 넓은意味에서 엘리트階層에 속하는 中上位階層의 位置는 특별히 重要性을 갖는다. 이 階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集團은 “創造的 인텔리겐차”로서 作家, 映画製作者, 言論人, 藝術人과 科學者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한 集團은 “技術的 인텔리겐차”로서 技術者, 農耕專門家, 經濟學者, 統計專門家 등이 여기에 속한다. 西方에서의 用語로는 이 두 集團을 “專門職業人”으로 일컬을 수 있다.

14) 89년 11월13일 소련의 각종생필품을 우리나라로부터 대량구입함에 따라 89년 10월말현재 韓·蘇間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5천4백44YEU(20피트짜리컨테이너1개)로 88년 같은기간의 1천8백61TEU에 비해 1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5) 李崇熙, 前揭書, pp.195~196.

이러한 職業人들이 갖는 體制로부터의 疏外感은 브레즈네프時期에 처음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이 疏外의 單純한 理由는 이들도 모든 肉體勞動者들과 마찬가지로 政治的 支配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데에 있다. 이들이 西方에서는 상당한 自律을 享有하는데 대하여 蘇聯에서는 이것이 許容되지 않는다. 의사의 치료, 詩人이나 作家의 創作活動, 經濟學者의 經濟分析, 歷史學者의 海外旅行, 言論人의 記事作成 등에는 항상 官僚的 規則과 黨路線과 政治的 價値의 介入이 排除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 階層은 蘇聯內에 批判的 大衆을 獲得해 가고 있었다. 이들은 蘇聯의 體制維持에 不可缺하다. 이들은 獨立과 表現의 自由를 隨伴한 眞正한 意味의 職業的 身分을 갖기를 願한다. 이제 그들이 前보다 좀 더 나은 條件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疏外의 좌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階層에 있어서는 意識的, 精神의 變化의 樣相을 要約해 보면,

첫째, 價値觀에 있어서의 變化이다. 政治指向性으로부터 人類의 道德的 普遍的 價値에 대한 關心이 커졌으며 眞理와 善惡의 意味등을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集團主義로부터의 탈피이다. 團結된 社會의 이미지에서 個人과 社會의 多樣性과 替在的 社會葛藤의 可能性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唯一眞理”의 概念을 받아들여던 思考에서 벗어나 正當性과 多樣한 意見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變化이다.

넷째, 理想鄉의 憧憬에서 벗어나 점차 現實的인 認識을 더해가며 社會의 人爲的 操作에도 限界가 있다는 것을 認識해가고 있다.

사실 고르바초프政權에서 나타난 蘇聯의 “危機直制狀況”에 대한 分析들의 大部分은 브레즈네프時期에 이미 많은 專門職業人들 사이에 討論되어 왔다. 이러한 1970年代와 1980年代 初에 보였던 이 階層에서의 動搖들은 고르바초프政策의 基礎를 어느정도 準備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結局 蘇聯의 새로운 指導層은 새로운 社會의 구태의연한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體制사이에 增加하고 있는 緊張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들의 要求가 어느정도 受容되어 질 것이다.

2. 蘇聯의 對 韓半島 統一觀

蘇聯의 韓半島에 대한 政策을 歷史的으로 分析하였을 경우, 東進 혹은 南進政策의 通路를 開拓하기 爲한 目的에서 出發하였다. 그러므로 帝政 러시아時代부터 그들은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帝國主義的 競爭속에 끼어 들었다. 그러나 日本과의 戰爭에서 敗하여 그것이 좌절되었던 것인데 第2次世界大戰 以後 北韓에 軍隊의 進駐, 共產政權의 樹立등에 의해 本來의 目的을 成就하였다. 그후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政策的 關心은 더욱 擴大되어 왔다. 現在 蘇聯의 對 韓半島政策을 安保의 次元과 統一問題과 關聯하여 考案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蘇聯은 韓半島問題로 因하여 日本에 대한 刺戟의 威脅을 加할 極端의 政策이나 軍事行動을 避하여 왔다. 現實的으로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이나 刺戟의 政策에 따라 發生하기 쉬운 不利益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蘇聯은 1950年의 韓國戰爭의 經驗에서 武力使用에 의한 韓

16) 讀書新聞社, 「韓國史의 再照明」 1975, p.485 參照.

半島의 統一이 어렵다는 것을 認識하였고 特히 南北韓의 軍事的 對決이 實現性이 없는 무모한 處事임도 理解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蘇聯이 北韓을 衝動하여 軍事行動을 일으킬 경우, 駐韓美軍 撤收를 延長시키고 日本의 본격적인 再武裝을 刺戟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急激한 情勢變化를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積極的 軍事活動을 삼가하고 있다.

둘째, 蘇聯은 北韓에 대한 影響力 行事만을 最大한 維持하고 北韓의 赤化 統一方式은 名分上 支持할 뿐이다. 特히 中國의 對 北韓關係를 고려하여 蘇聯도 北韓에 대한 軍事的 經濟的 支援을 계속 維持하여 왔다. 다른한편 冒險主義的 戰爭挑發에 대하여는 中·蘇關係, 對美·日關係등 強大國間의 關係에서 方向設定이 되었을때 限하여 어떤 影響力을 行使한다는 節次를 取하였다.

셋째, 蘇聯은 北韓의 蘇·中國을 對象으로한 等距離 外交에 實望하여 韓國과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것은 韓國의 對 中國 密着을 妨害하기 爲한 戰略일 수도 있다.

그러나 最近 蘇聯이 韓國에 보여준 善意의 態度는 앞으로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첫단계¹⁷⁾로써 파악될 수가 있고 이러한 關係改善은 韓半島에 理解勞圍氣를 造成하는데 寄與할 것이며 蘇聯이 願하는데로 두개의 韓國이라는 現象의 安定이 構築될 것이다.¹⁸⁾ 이러한 狀況을 뒷바침 해 준것이 90년 4월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과 베이커 美國務長官과의 會談에서 韓半島의 統一과 情勢安定에 도움이 된다면 南·北韓頂上을 모스크바에 함께 초청 만나도록 할 用意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五月로 예정된 美·蘇頂上會談을 준비하는 過程에서 蘇聯當局으로 나온 發表로써 「蘇聯은 南·北韓 모두와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問題를 仲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脫冷戰時代의 새로운 韓半島問題 解決樣相이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最近 韓·蘇關係를 言及한 한 蘇聯學者의 見解는 앞으로 韓半島問題 解決 및 統一로 向할 수 있는 過程中的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意味한다. 그의 立場을 밝혀보면: ¹⁹⁾ 韓國問題에 대한 蘇聯의 保守的인 韓蘇關係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몇가지 要素들만 除去된다면 돌파구가 마련 될 것이다.

첫째, 만일 韓國政府와 美國政府가 明確한 時期에 美軍을 撤收(또는 減縮)시킬 意圖를 發表한다면 韓半島와 東北亞狀況은 實質的으로 改善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從前에도 北韓이나 蘇聯에 의해 계속 主張되어온 것이다. 現在와 같은 눈에 보이게 改善되고 있는 國際狀況에서 美軍의 韓國駐屯계속은 더욱더 「冷戰」의 遺物이 되고 있다. 北으로 부터의 軍事的 威脅이라는 가설은 더욱 現實的이 되지 못한다. 어느다른 理由보다도 北韓은 南韓과 戰爭을 일으

17) 1990년 3월20일~27일까지 金泳三 民自黨총재의 소련방문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성과 및 년내 同時修交 可能性을 비쳤다.

18) 河萬경, 「蘇聯의 동아시아 政策: 韓半島 統一에 대한 認識」, 「韓半島의 統一-展望」(慶南大學校 極東問題 研究所, 1986), pp.153~157.

19) 창간70주년기념 「東아시아 새질서」 6개국심포지엄-겐나디 I·슈프린(蘇과학원 동양연구소 부소장)의 韓·蘇관계 外交의 장래의 견해참조, 「동아일보」, 1990.3.2.

킬 意圖가 없을 뿐 더러 그런 能力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韓半島의 軍事力 均衡은 實質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南韓의 大規模 軍事力 增強때문이다. 그럼에도 89年中 北韓은 일방적으로 軍事力을 10萬名 減軍했다. 88년11월 北韓이 92년까지 南·北韓의 軍事力을 10萬名을 段階的으로 減軍하자고 提案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蘇聯과 同盟國은 89년에 그들의 軍隊를 아프가니스탄과 蒙古, 캄보디아로부터 撤收시켰다. 蘇聯은 고르바초프가 88년12월 유엔연설에서 發表한 대로 極東地域에서 20萬名의 일방적 減軍을 始作했다. 그 결과 極東地域에서의 蘇聯軍은 91년에는 數的으로 韓國軍의 現水準에도 못 미칠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美軍도 韓半島에서 撤收決定을 하는것이 理致에 맞다.

둘째, 蘇·美間 中距離核戰力(INF) 減縮協定이 成功的으로 移行되고 있는데 韓國에 配置된 美核武器問題가 왜 解決되고 있지 않은지 理解하기 어렵다.

셋째, 蘇聯國民은 蘇聯國境 바로 隣接地域에서 大規模의 ทัพ 스피리트 軍事訓練이 定期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것에 매우 憂慮하고 있다. 이 軍事訓練의 規模와 期間을 줄이고 또한 蘇聯參觀人團을 招請하게 된다면 그같은 憂慮를 줄이고 이 地域에 信賴靄圍氣를 造成할 것이다.

오늘의 世界는 急變하고 있다. 오랫동안 超強大國과 그들의 盟邦들의 現實政治에서 最優先을 차지하던 軍事的 考慮는 뒤로 물러나고 많은 나라들에서 經濟的 考慮가 國家戰略에서 더욱더 第1의 役割을 하기 始作했다.

여기에 便乘되어 東北아시아도 重大한 變化를 始作한 것으로 分析된다. 비록 現存하는 (美·日, 韓·美, 蘇·北韓, 中·北韓)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겠지만 經濟的 考慮가 過去 對決主義의 좁은 생각을 물리치고 대신하기 始作했다는 事實은 明白하다.

다음 段階는 政治的인 것이어야 하며 양측은 서로 그같은 方向의 措置를 취해야 한다. 蘇聯內 現在 靄圍氣는 東北아시아에 政治的 發展이 있기를 期待하는 것이다. 全世界가 變해가고 있는 때에 우리 누구도 停止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見解는 絶對的일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見解든 항상 相對的일 수 있다는 것에 吟味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표2>

蘇聯체제 정치-권력구조 개편안

	현행	개혁안
黨이념	사회주의(공산주의)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
黨역할	「정치제도, 국가-사회조직의 중핵」과 「지도세력」으로 헌법상 규정(6조)	법정 우위 및 기득권 포기, 집권당 지향
정당제	일당독재	복수정당 수용
권력	공산당에 권력 집중	黨과 국가권력의 분리

지도자	공산당 서기장	최고회의 의장, 부의장(2人)
黨중앙위	약360명	200명
지도기관	정치국	정치집행위원회
경 세	계획경제	계획을 가미한 시장경제 병행
소유형태	국유, 집단소유	私有인정등 다양화

(자료 : 「세계일보」, 1990. 2. 9)

<표 3>

89 년도 對共產圈交易 現況

(단위 : 천 달러)

국 가	수 출	수 입	총교역량	전년대비 증감		
				수 출	수 입	총교역량
蘇 聯	207, 746	391, 700	599, 446	181, 725	213, 388	395, 113
알바니아	318	16	334	△ 273	16	△ 257
불가리아	17, 848	11, 104	28, 952	12, 305	7, 483	19, 788
체 코	79, 483	23, 896	103, 379	56, 116	12, 719	68, 835
동 독	20, 940	6, 888	27, 828	△ 7, 925	△ 736	△ 8, 661
헝 가 리	48, 986	19, 098	68, 084	28, 294	7, 670	35, 964
폴 란 드	56, 126	17, 069	74, 095	29, 005	2, 722	31, 727
루마니아	342	18, 681	19, 023	△ 2, 421	△ 4, 208	△ 6, 629
유 고	46, 652	20, 126	66, 778	30, 021	2, 805	32, 826
중 국	1, 437, 355				317, 847	157, 320
베 트 남	44, 891	41, 897	86, 788		28, 046	11, 056
계	1, 960, 687	2, 255,	4, 216,	149, 326	587, 742	737, 068

(자료 : 韓國經濟新聞, 1990. 3. 11 일자.)

<표 4>

88 년도까지의 蘇聯의 對韓交易 現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86	증감	'87	증감	'88	증감	
소련	수출	65	8.3	67	3.1	112	67.1
	수입	68	61.9	133	95.6	178	33.8

(자료 : 韓國經濟新聞, 1990. 3. 26 일자.) 소련의 소비재부족에 힘입어 치약, 비누, 신발, 섬유,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늘고, 선박 12척(5억 1천만 불)을 수주했으며 소련으로부터는 수산물, 석탄, 선철, 원면 등을 대량으로 수입했다.

<표 5>

國內企業의 對蘇投資事業 推進現況

(90년 6월 현재)

업 체	사 업 명	투자액 (만달러)	비 고
현 대	토볼스크 석유화학단지	3,000	美CE社와 합작계약
	파르티잔스크 식탄개발		대성탄좌와 합작, 1 단계 30 만~50 만t 생산
	스베틀라야 삼림개발	100	계약체결, 빠르면 6월중 원목 국내 도입 개시
	블라디보스토크 퍼스널컴퓨터 공 장	200~250	의향서 교환, 91년부터 연간 12만대 생산
	나훛카 비누공장	500	의향서 교환, 연간 2만 1천t 생산
	나훛카 선박수리소		합작계약체결
	나훛카 무역센터	5,000	의향서 교환
	야쿠츠크 가스전 개발		추진중(합의)
	블라디보스토크 아파트		추진중
수산물 가공공장		"	
삼 성	쑤전자교환기 합작생산		계약체결
	모스크바호텔 보수—운영	200	"
	시베리아 삼림개발		일본업체와 공동추진중
	킬리TV용 브라운관 공장		추진중
	나훛카 호텔 건설	1,000	"
	제지—제당 공장 건설		"
릭 키 금 성	레닌그라드에 전자공장과 호텔 무 역관 아파트		릭키개발이 美백텔社와 합작계약체 결
	냉장고 공장	3,000	추진중, 연간 1백만대규모
	비누등 생필품 공장		일본업체와 합작 추진중
	석유화학단지		추진중
대 우	우즈베크공화국에 방직 봉제공장		2 차 현지방문 완료
	모스크바 호텔		부지 물색중
	전자레인지 플랜트		추진중, 연간 20만대규모
	현지 유통망 구축		추진중
	팬티스타킹 플랜트		"
선 경	하바로프스크 경공업제품 공장		합 의
	원유—가스등 자원개발		추진중
롯데	모스크바 백화점 외식매장	73,000	합 의

효 성	중전기 플랜트		추진중
쌍 용	호텔무역센터		"
동 양 나이론	카프로락탐 공장		"
포 철	관공호텔		"
삼 환	티모르스크 목재 공장	98	합 의
	하바로프스크 호텔		"
극 동 건 설	나훗카 호텔		추진중
진 도	모스크바 피혁-모피매장	40	설치완료
	모피가공공장		추진중, 연말가동예정
화 승	모스크바 신발공장		美업체와 합작 추진중

(자료: 世界日報, 1990. 6. 2 일자)

IV. 中國開放政策과 對 韓半島 統一政策

1. 中國開放政策과 對 韓半島關係

中國은 亞·太地域의 強大國으로서 이 地域에서 自國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美·蘇主 導로 支配되고 있는 既存의 地域秩序가 變化되기를 바란다. 곧 亞太地域의 勢力均衡에 變化 를 바라고 있다.²⁰⁾ 이를 爲해서 中國은 從來의 理念, 革命輸出 또는 軍事的 威脅보다는 平和 共存에 立却한 地域國家들間의 政治, 經濟協力を 強化하는 方法을 擇할 것이다. 이러한 外交 路線은 中國이 取하고 있는 對內外政策과 附合되고 있어 “現代化” 目標가 全幅적으로 修正되 지 않는 한 持續적으로 推進될 것이다. 또한 現在의 國際關係 및 國際政治潮流는 中國이 追 求하고 있는 對亞·太政策과 脈을 같이하고 있어 中國의 平和共存 및 對外經濟開放은 積極的 으로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國際關係의 多極化와 緊張緩和 趨勢는 中國의 安保와 經濟發展 을 同時에 만족시키는 肯定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고, 亞·太地域에서 自國의 影響力을 擴 大시킬 수 있는 좋은 機會로 보고있다. 中國의 實用主義 外交路線은 理念보다 安保와 經濟發 展에 優先을 두고 있다. 鄧小平이 주장하는 「國際政治新秩序」는 對話와 緊張緩和로 보고 있 고, 國際情勢 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獨立·自主」의 平和外交를 強調하고 있다.

亞·太地域에서 中國의 安保政策은 主로 美·蘇間의 勢力均衡 變化에 따라 바뀌어 왔다. 中國은 共產革命 成功後 現在까지 安保와 經濟發展이라는 目標를 同時에 達成하고 美·蘇에 의해서 主導되었던 國際 및 地域情勢에 對處하여 왔다. 1950年代에는 「親蘇·反美」 1960年代 에는 「反美·反蘇」 1970年代에는 「親美·反蘇」 1980年代에는 獨立自主路線과 平和共存에 따

20) 崔宜喆, “中國의 對亞·太政策”, 「외교」, 제10호(한국외교협회, 1989), pp.21~35 參照.

은 「親美·親蘇」라는 政策으로 旋回하고 있다.

鄧小平의 開放政策이 高調된 1980年代 末까지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은 過去의 北韓支持 一邊倒에서 벗어난 實用主義的인 政策으로 轉換되었다.

中國은 安保, 軍事的인 重要性으로 北韓에대한 政治, 經濟的 支援을 確固히 하고 있다. 一面 中國은 韓國과의 非政治的 交流를 增大시키고 이로 因한 經濟的 利益²¹⁾과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과 關聯하여 中國의 政治的 影響力을 堅持하려는 意圖가 分明해지고 있다. 이러한 中國의 韓半島 二重政策은 現代化가 持續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은 호유방 總書記의 平壤방문때(1985) 中國·韓國과의 交易등 非政治交流 增大등에 抗議를 하였으나, 中國은 “內政干涉”이라는 理由로 北韓의 不滿을 묵살하고 平和共存五原則이 中·北韓間에도 適用된다는 것을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中國은 金日成의 스탈린식 位階體制, 世襲問題 및 北韓의 軍備增強과 對南好戰性을 좋지않게 생각하고 있다.

中國은 韓半島의 安定을 爲해서 北韓의 對內外政策이 修正되기를 바라면서 自國의 改革政策을 北韓에 說明하고, 南北協商을 통한 平和로운 解決策을 強調하고 있다. 中國은 적어도 現狀維持 또는 緊張緩和가 中國의 利益이라는 것을 直·間接으로 分明히 하고 있다. 韓半島의 安定은 中國의 現代化에 絶對的으로 必要하고 美·日과의 經濟協力 持續에도 重要な 要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의 亞·太地域의 基調는 地域安定을 통한 自國의 經濟發展追求에 두고 있다. 또한 中國이 標榜하는 自國의 位相은 軍事, 經濟面에서 名實相符한 地域強大國으로 뛰어올라 美·蘇와의 對等한 關係를 構築하는 것이다.

戰略的 側面에서 中國이 目的하는 地域安定은 반드시 現狀維持나 現狀固着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中國은 亞·太地域에서 美·蘇의 影響力을 弱화시켜 美·蘇中心의 勢力均衡에 變化를 超來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中國은 自國의 安保脆弱性을 克服하고 自國의 位置를 相對的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軍事·經濟的 脆弱性으로 美·蘇와의 正面對立이나 競爭보다는 美·蘇와의 和解를 통한 政治的 手段을 構想하는 한편, 中國의 利益에 反하는 地域霸權主義 追求에는 強力히 對處하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意圖는 成功을 거두고 있고 中·蘇頂上會談을 통한 中·蘇和解는 美·中·蘇의 戰略的 三角關係가 對等한 關係로 發展하는 契機가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은 過去 敵對關係에 있던 周邊國들과의 政治關係를 改善하여 自國의 政治, 外交의 影響力을 擴大하고 있다.

最近 先進國들의 國際利益을 保護하기 爲한 地域블럭化 움직임에 對處하여 中國은 自國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新興工業國中心의 經濟블럭化를 提案하고 있는 것은 先進國들의 經濟支

21) 88년도중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교역은 36억5천만달러로 87년보다 80%나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은 미·일·서독에 이어 우리나라 네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89년 4월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89년환경제책서」에 따르면 작년중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교역규모는 수출(무역진흥공사 實査值기준)20억달러, 수입(관세청통계기준) 16억5천만달러로 모두 36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전체공산권 교역규모의 87.5%인 31억9천6백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소련의 2억7천8백만달러(7.6%) ▲소련제외 동구는 1억7천6백만달러(11.9%)를 차지하였다. 88년도중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규모(31억9천6백만달러)는 미국(3백42억달러), 일본(2백79억달러), 서독(45억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교역 상대국이 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配를 牽制하려는 意圖를 反映하고 있다.

現在 中國은 軍事的으로 地域強大國이지만 經濟的으로는 개도국의 位置에 있어 不完全한 地域強大國이다. 이러한 脆弱性을 克服하고 地域安定을 통해 改革政策을 持續하기 爲하여 對外開放과 平和共存은 더욱 強化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現在 中國의 不完全한 位置를 克服하기 爲한 對外開放의 始發點인 政治改革은 1978年 中國共產黨11期3中全大會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全般的으로 體系化되고 具體化되어 나타난 것은 역시 1978年 中共黨13次大會 때 부터이다. 이 13次黨大會에서 趙紫陽總書記의 工作報告에 의해 政治體制改革의 內容이 明示되어 있다.

第13次黨大會에서 趙紫陽總書記가 提出한 中國政治體制改革의 樣相은 다음과 같다.

첫째, 黨工作의 中心을 「以階級鬭爭爲綱」(계급투쟁을 기본으로 삼는다)에서 「社會主義現代化建設戰略」으로 轉換시켜 나가는 것

둘째, 經濟體制, 科學技術體制, 教育體制的 改革을 促進시키고 그리고 計劃的인 社會主義 商品經濟에 適應시키고 生産力 發展을 加速化시키는 것

셋째, 黨과 國家의 政治生活에 民主化를 促進시키고 社會主義 法制을 強化시키고 根本的으로 官僚主義를 克服하는 것

넷째, 文化大革命의 悲劇的인 再現을 防止시키는 것

다섯째, 四頂基本原則을 堅持하고 資產階級自由化를 反對하는 것 등이다. 이것이 現在 中國이 進行하고 있는 政治體制改革의 基本計劃이며 具體的 目標이다.²²⁾

이러한 1978年以來 積極 推進되어온 改革政策과 保守理念 指向의 元老勢力들이 大舉退陣되고 合理主義的인 改革勢力들이 크게 進出한 權力構造의 改編에 따라 政策決定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役割이 보다 弱화되는 脫 이데올로기化 現狀이 더욱 鮮明해지고 있다. 이러한 中國社會의 脫 이데올로기化 現狀과 政策決定의 變化는 中國外交政策上的 융통성과 多樣性을 期할 수 있게 하였고, 外交의 活動領域을 크게 擴大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外交政策의 새로운 性向은 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認識과 政策調整의 重要한 要因으로 發生하게 된 것이다.²³⁾

이러한 中國에서 價值觀의 變化나 外部世界에 대한 認識形式에 있어서 基本尺度의 變化는 韓半島에 대한 그들의 認識變化를 不可避하게 하였다. 最近 中國이 비록 制限된 範圍이지만 韓國을 對話와 交流의 客體로 認定하고 있다는 데서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에 重大한 變化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그런데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은 그들의 政策改革의 進展과 더불어 더욱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中國이 亞·太地域에서의 高度經濟發展을 그들의 現代化와 連結시키는 데서 韓國이 經濟的으로나 地理的으로 가장 重要한 位置에 있다고 評價한 事實에서 잘 알 수가 있다.²⁵⁾

22) 李文圭, “中國改革政策의 諸問題”, 「統一問題研究」, 第一卷3號(國土統一院, 1989 가을), pp.146.

23) 朴斗福,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과 韓·中關係”, 「國際政治論叢」, 제29집2호(韓國國際政治學會, 1989), pp.71~72.

24) 朴斗福, “韓·中經濟發展의 主要要因과 韓國의 對中共 政策方向”, 「國際情勢와 韓國外交」(1986年度 外交安保研究院: IFANS年列報告) p.136에서 再引用.

25) 黃大明外7人, “亞·太經濟態勢與上海經濟戰略”, 「社會科學」, 第8期(上海, 1975), p.16.

이와같이 中國의 對外政策의 「經濟化」趨勢가 그들의 韓半島政策의 調整過程에 投影된 側面은 바로 韓半島에 있어서 經濟價値의 浮刻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中國의 韓半島에서의 經濟價値는 北韓보다는 南韓과의 關係에서 追求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過去 中國이 北韓과의 關係에서 追求해 왔던 革命과 理念的 價値는 점점 그 重要性을 喪失해 가면서 相對的으로 南韓과의 새로운 關係에서 나타나는 經濟的 價値는 앞으로 中國의 對 韓半島 利益增進에 더욱 重要的 價値를 點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은 北韓과의 既存 友好關係의 維持를 基本으로 하면서도 韓半島狀況의 具體的인 變化에 따라 自國의 基本理解關係에 基礎, 對 韓半島政策을 調整해 가려는 側面이 점점 增大됨으로써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은 「二分化 過程」을 보이고 있다.²⁶⁾

最近 中國의 南·北韓 對話進展에 대한 欲求와 北韓의 對話中斷에 대한 不滿등에서 볼 수 있듯이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北韓의 立場間에 差異가 점차 表面化되고 있고 韓國의 經濟發展이나 北韓의 對外開放問題에 대한 中國의 視覺이 北韓과 반드시 一致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緊張緩和등 韓半島問題에 대한 中國·北韓間의 基本立場과 理解關係上的 間隔은 中國의 韓半島政策을 二分化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韓半島에 대한 中國政策의 二分化 趨勢는 中國의 對 韓國 關係改善에 가장 重要的 環境要因(變數要因)으로 作用해 갈 것이다.

2. 中國의 對 韓半島 統一觀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은 蘇聯보다도 더욱 慎重한 立場을 堅持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앞으로도 重大한 契機가 나타나지 않는 한 상당기간 持續되어 갈 것이다. 그 理由로서 中國의 對韓關係發展政策에 投影되는 北韓因子의 作用이 蘇聯의 對韓政策에 비해 더욱 強하고 敏感하게 나타나 있고, 또한 國土分斷狀況에서 招來되는 自國의 統一意志와 「하나의 中國」 政策原則이 그들의 對韓關係 發展과 直接的으로 連結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특히 中國은 韓國과의 關係發展에 있어서 「北韓因子」로부터의 脫皮할 수 있는 歷史的 與件이 아직 成熟되어 있지 못한 霧圍氣이다. 즉 美·蘇間의 新데탕뜨나 中·蘇關係의 急進展등 韓半島周邊狀況의 重大한 變化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間의 對決構造에 重大한 變化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韓·美間의 軍事的 同盟關係등 南方三角關係가 1950年代의 冷戰體制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은 韓半島政策에서 北韓과의 政治·外交關係를 基本으로 維持해 간다는 對 韓半島 政治原則을 修正하거나 調整할 수 있는 與件이 形成되어 있지 못하다는 觀點이다. 이러한 中國의 觀點은 南·北韓 對決構造나 南方三角關係의 質的變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中國의 對 韓關係發展을 政治·外交的關係 正常化水準까지 發展시켜가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中國自體가 設定한 統一原則도 韓國과의 關係正常화가 前提가 되는 두 개의 韓國論理나 南韓의 政治的 實體認定을 받아 들이는데 重要的 政治的 負擔으로 나타날 것이다. 中國이 그들의 分斷克服의 論理로 提示한 「一國家二體制」論도 결코 聯邦制國家를 指

26) 朴斗福, 前掲書, pp.74~77.

27) 朴斗福, 上掲書, pp.83~85.

向하는 것은 아니다.²⁸⁾ 「一國家二體制」論에 基礎한 統合된 中國에서 香港이나 臺灣은 聯邦制에 의한 構成員이 아니라 地方政府的 性格을 갖는다는데 注目해야 한다. 同理論에서 「中國香港」의 名義로 國際機構 및 國際聯合에 加入되는 것은 中國의 國家性格을 變更시키는 것으로, 積極적으로 排擊되고 있다. 中國이 그들의 「一國家二體制」論에 中國以外的 다른 分斷國들이 分斷克服方式으로 採用할 수 있는 普遍的 原則으로 強調하고 있고, 韓半島統一問題에 대한 北韓立場의 支持도 바로 「一國家二體制」論에 基礎하고 있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이러한 中國의 統一論理인 「一國家二體制」論이 두개의 中國을 積極 排擊하고 있다는 데서 이러한 統一論理나 原則은 韓半島에서 두개의 韓國이나 韓國의 政治的 實體認定이 前提되어야 하는 關係正常化나 또는 交叉承認方式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統一의 過程도 順序를 밟듯이 現在의 韓·中關係가 蘇聯보다 進展速度가 늦을지라도 中國은 北韓의 不滿이나 抗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韓國과의 關係를 漸進적으로 改善할 것이다.³⁰⁾ 그러나 그 方向이 반드시 一貫性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中國은 短時日內에 韓國政府를 承認하거나 또는 韓國高位指導者들과 公開적으로 接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韓國의 유엔단독加入을 支持하지 않을 것이 分明하다. 그들은 南·北韓關係改善은 바로 中·韓關係의 要件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韓半島問題의 解決을 궁극적으로 韓國人 스스로 講究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南·北韓間에 展開되는 어떠한 接觸이나 協商도 그들은 환영하고 支持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緊要한 問題는 韓半島에서 平和安定의 基盤을 固着시키는 일이다. 이 目的達成을 爲하여 그들이 取할 수 있는 方法이 있는 한 계속하여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南·北韓間의 成功的인 會談 및 強大國間의 協力體制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對韓政策을 造成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V. 結 論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이라는 長期目標는 北韓의 態度가 本質적으로 變化하지 않는 한 國際體制次元에서의 努力만으로 達成될 수 없는 것이며, 南·北韓關係의 劃期的 發展을 爲한 對北政策 및 統一政策的 努力이 並行되어야 만 한다. 바로 이점이 國際體制次元과 分斷體制次元이 關聯을 갖는 것이다.

現 政府의 北方政策이 이른바 「7·7宣言」을 통해서 表明되었듯이 對北韓關係에 있어서 民族共同體라는 認識下에 對決의 關係를 止揚하고 南北韓間 和解와 協力を 強調한 것은 既存의 冷戰의 對決構造를 脫皮하고, 能動的인 協력과 同伴政策으로의 轉換이라는 認識과 發想이 轉換을 前提했다는 點에서 評價받을 만 하다. 現政府의 北方政策 方針이 北韓의 孤立化를 止揚

28) 董立坤, 「論香特別區 在對外關係中的 法律研究」, 「學術季刊」, 第四期(上海, 1988) 參照.

29) 胡耀邦이 1984년 평양방문시 한반도 통일문제의 解決原則으로 「一國家二制度論」을 提起한바 있고 同年 북경을 방문한 香港行政立法 委員會의 3명의원들과의 對談에서 鄧小平이 同理論은 香港의 狀況을 고려하여 특별히 고안된 모델이지만 南·北韓과 東·西獨과 같은 다른 分斷國들의 統一問題解決에 先例가 될 수 있음을 強調한 바 있다.

30) 李採略, 「韓半島統一過程에서의 中共의 역할」, 「韓半島統一展望」(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pp. 119~120.

하고 北方政策을 對 北韓政策 및 統一政策과 關係지워 推進한다는 등의 總論은 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방침을 實證的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具體的方法이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國際體制와 分斷體制 次元의 問題들과 더불어 반드시 解決되어야 할 課題가 國際體制次元의 問題들이다. 效果的인 北方政策을 算出하기 爲해서는 國民的 合意도출이 不可缺하며, 國民的 合意도출을 爲해서는 國民的인 民主化와 改革政策이 先行되어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北方政策의 目的을 達成하는 길은 안으로 부터의 團合에서 統一의 意志를 높이는 것이며, 硬直된 北韓體制를 民族共同體의 包容力으로 溶解하는 일도 바로 이 始點에서 出發하는 것이다.³¹⁾

이제까지 言及된 狀況들을 綜合해 볼 때 統一을 向한 現 過程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原則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南·北相方의 現在 權力體制에 대한 相互認定이다. 사실상 統治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權力關係를 認定하지 않는다면 對話나 協商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측의 執權勢力을 제쳐놓고 反對派와 對話를 試圖하는 것은 革命的 方法에 호소하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相互間의 內政不干涉이다. 이것은 國際法上的 確認된 原則이기도 하다. 한쪽이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대해 干涉한다면 對話의 基本要件인 信賴는 期待할 수 없다.

셋째, 相對方을 共存의 同伴者로 相互認定하는 것이다. 서로가 敵對關係에서 벗어나 共存과 協力の 相對로 認定할 때 비로소 協力이나 再結合의 論議가 可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變化에 쫓기는 消極的인 立場이 아니라 變化를 관리하는 積極的 姿勢에 臨한다면 韓半島의 統·可能性도 멀기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오랜 冷戰體制에서 굳어진 南·北韓의 政治·經濟의 壁을 밖에서 부는 脫冷戰의 바람으로 무너뜨리고 거기서 생기는 內部的 힘으로 世界를 相對할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때다. 지금의 國際社會의 政治現實과 經濟흐름에서 統一의 巨步도 작은 걸음부터 始作한 東·西獨이 統獨을 이룬 教訓을 깊이 吟味해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1卷 1號, 1989봄.
2.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1卷 2號, 1989여름.
3.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1卷 3號, 1989가을.
4. 金成允, “中·蘇의 和解와 韓半島”, 「統一問題研究」 國土統一院, 제1권 3호(1989가을).
5. 李崇熙, “「페레스트로이카」의 發展段階”, (上同).
6. 李文圭, “中國 改革政策의 諸問題題”, (上同).
7. 朴昌熙, “東歐社會主義國家의 改革 움직임”, (上同).
8. 曹瑛煥, “社會主義國家의 改革과 北韓의 改革可能性”, (上同).
9.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9집2호, 1989.

31) 金達中, “北方政策의 概念, 目標 및 背景”, 「國際政治論叢」 제29집2호(韓國國際政治學會, 1989), p.51.

10.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9집1호, 1989.
11.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8집2호, 1988.
12.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8집1호, 1988.
13.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7집1호, 1987.
14. 韓國政治學會, 「韓國政治學會報」, 제23집2호, 1989.
1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2호, 1989가을.
16. 건국대학교 부설중국문제연구소, 「統一問題研究」, 第5輯, 1987.
17. 조병선, 「북방정책의 실상과 전망」(서울: 열음사, 1989).
18. 金龍濟, 「韓半島 統一論」(서울: 博英社, 1990).
19. 李命英, 「統一의 條件」(서울: 종로서적, 1989).
20. 李洪九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서울: 博英社, 1986).
21. 金得柱, 「現代政治理念과 南·北韓關係」(서울: 大旺社, 1989).
22. 閔丙天, 「北韓의 이데올로기」(서울: 大旺社, 1987).
23. 鄭鎮洵, 「北方三角關係」(서울: 法文社, 1985).
24. 金達中, 「中共의 改革政治」(서울: 法文社, 1988).
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韓半島의 統一展望」, 연구소연구시리즈⑳, 1986.
26. _____, 「北韓의 對外政策」, 연구소연구시리즈㉑, 1986.
27. _____,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1호, 1989봄.
28. 李相禹, 「統一韓國의 模索」(서울: 博英社, 1987).
29. 金東成, 「中共對外政策論」(서울: 法文社, 1988).
30. 崔鍾起, 「蘇聯外交政策論」(서울: 法文社, 1988).